

EU 동물 위생 전략 2007-2013*

유 찬 희 · 우 병 준

1986년 영국 광우병 발생 이후 유럽연합은 지속적인 발병 예방 및 초동대응 조치를 취해왔다. 2007년 발표한 '유럽연합 동물 위생전략' 역시 이러한 정책방향의 일환이다.

1986년 영국 광우병 발생 이후 유럽연합은 지속적인 발병 예방 및 초동대응 조치를 취해왔다. 2007년 발표한 「유럽연합 동물 위생 전략 2007-2013」 역시 이러한 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이 전략은 향후 동물 위생 정책의 방향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4가지 이행계획을 세우고 세부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1. 유럽연합 동물 위생 전략 2007-2013: “Prevention is better than cure” 의 개요

2004년 12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기존 축산위생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 새로운 방향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 배경에는 1) 기존 정책의 주요 내용들이 12개 회원국만이 가입해 있던 1988~1995년 사이에 작성되었고, 2) 기존에 없던 질병이 새로이 발견되었으며, 3) 과학 기술과 제도의 발전 등이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동물 위생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04년 12월 외부 평가와 이해관계자의 자문을 거쳐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2년간의 평가를 거쳐 2007년에 발간된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향후 6년간 적용할 동물 위생 전략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 평가 결과와 공청회를 거쳐 새로운 「유럽연합 동물 위

* 본 내용은 대상국가의 보고서 및 데이터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찬희 연구원과 우병준 부 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 (chrhew@krei.re.kr, 02-3299-4232. bjwoo@krei.re.kr, 02-3299-4378)

생 전략 2007-2013(EU Animal Health Strategy 2007-2013)」안을 상정하였다. 집행위원회 초안은 유럽연합 개입의 우선순위 설정, 합리적이고 적절한 동물 위생 정책의 틀 마련, 예방·감독·위기 대응방식의 개선, 연구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유럽연합 경제·사회 집행위원회(the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유럽의회(the European Parliament)는 각각 2007년 12월 17일, 2008년 1월 17일, 2008년 5월 22일 새로운 동물 위생 전략을 수용하고 이에 대한 보충 의견을 발표하였다.

‘유럽연합 동물 위생 전략’의 집행위원회 초안은 유럽연합 개입의 우선순위 설정, 합리적이고 적절한 동물 위생 정책의 틀 마련, 예방·감독·위기 대응방식의 개선, 연구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표 1 유럽연합 이사회의 검토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물 위생 전략과 관련된 이행 계획 제시가 필요함. - 동물위생법의 정책 틀 제안, 일반 원칙 수립, 기능과 책임에 대한 명백한 정의, 질병 예방·통제를 다른 정책과 일치하도록 할 것을 강조함. - 효율적인 자원사용을 위한 우선순위 정의, 투명하고 과학적인 위험 평가에 기초한 이행계획 우선순위 반영, 회원국들의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자문위원회(Advisory Committee)의 기능을 명확하게 정의할 것을 권유함. - 유럽연합 기금의 재원, 역할, 역할, 우선순위 기준을 추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음. - 과학연구혁신 관련 예산 집행 우선순위와 기준에 대한 추가 평가가 필요함.
--

표 2 유럽연합 경제·사회 집행위원회의 의견

유럽연합의 정책 우선순위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수단의 우선순위 결정은 전략 이행에 있어 핵심 요소이고, 이 과정에서 수용할 수 있는 위험 수준(acceptable level of risk)"을 정의하는 것이 필요함. - 위험성과 정책 개입 필요성의 계층평가우선순위 부여를 위한 지표가 투명하고, 이해하기 쉽고, 운용이 용이하고, 측정할 수 있어야 함. 이러한 지표를 전략 이행 과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 중 하나임.
합리적이고 적절한 동물 위생 정책 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연합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 틀이 국제적 기준과 최대한 일치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국제수역사무국(OIE) 등의 향후 규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유럽연합의 확대에 따라 지역이 넓어지면서 가축 이동에 따른 병원체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가축 수송을 제한하는 방안의 검토를 제안함. - 재정 문제는 항상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임. 정책 자금 지원을 받는 수의(獸醫) 정책에 대한 공동책임은 유지하되, 현재 몇 가지 문제를 노출한 "효과적이고 책임 소재가 분명한 비용효과적 모형(effective and responsible cost-effectiveness model)"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음. - 국가 차원의 공동 기금 출자에 일관되고 조화로운 정책 틀을 적용하여 경쟁의 왜곡을 방지해야 함. 동일한 원칙에 따라 비용을 회원국들에게 부과할 때에는 비용 규모와 책임 분담 그리고 국가간 관계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가축질병 감독 및 사전대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경험에 비추어 불 때 농가 차원에서의 관리(management)는 질병 관리와 동물복지를 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므로 해당 조항에 농장 종사자들이 훈련과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 회원국들의 효과적인 국경 통제와 관련하여 질병의 구체적인 위험과 가능한 결과에 대해 전반적인 평가가 필요함. 이와 동시에 불법 교역을 방지해야 하므로, 수의당국과 세관의 협조를 강화하여 보다 유연한 국경 검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백신 접종이 가축 살처분을 효과적으로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면 도입할 필요가 있음. 다만 구체적인 상황, 원칙, 요인 등을 설정해야 함.

유럽연합 동물 위생 전략 2007-2013의 주요 목표

이 전략은 향후 동물 위생 정책의 방향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수립된 정책 우선순위는 전략적 목표와 일치하고, 이해 당사국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이 전략은 향후 동물 위생 정책의 방향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수립된 정책 우선순위는 전략적 목표와 일치하고, 이해 당사국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이다.

표 3 「유럽연합 동물 위생 전략 2007-2013」의 주요 목표

목표 1	가축질병, 식품 관련 유해물질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높은 수준의 공중위생과 식품 안전성 달성
목표 2	가축 질병 발생의 근절감소를 통한 농가와 지역 경제 지원
목표 3	상품과 가축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여 경제 성장·통합경쟁력 제고
목표 4	농가 영농 방식 개선 및 동물복지의 달성 과 이를 통한 환경 부하 최소화

자료: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전략 추진을 위한 이행계획(action plan)

이번 동물 위생 전략은 앞으로 6년동안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 이행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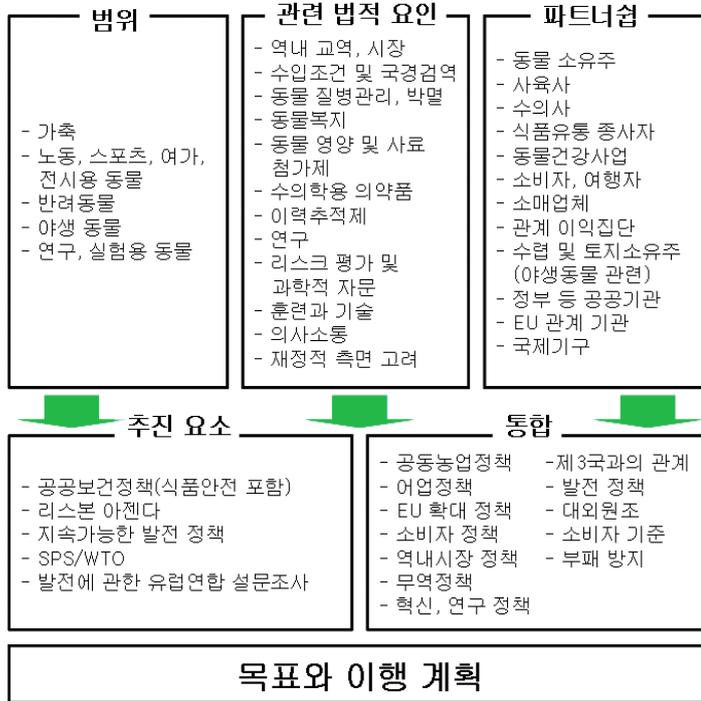
이번 동물 위생 전략은 앞으로 6년 동안 전략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표 3에 제시된 4가지 목표를 가진 이행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4가지 목표에는 공통적으로 파트너십과 소통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번 동물 위생 전략은 질병 근절 외에도 동물 복지의 핵심적인 부분까지 포괄한다. 식용 가축 외에도 스포츠용 동물, 반려동물, 실험용 동물 등 넓은 범위에 대해 적용된다(‘범위’).

가축·동물 생산의 전후방 과정, 역내·대외 교역, 연구·훈련·인적 자원 육성 등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법적 요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전략을 수립하였다(‘관련 법적 요인’). 생산농가·유통업자·관련 사업 종사자 외에도 정부 등 공공기관과 국제기관의 이해관계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파트너십’).

이번 동물 위생 전략도 보다 큰 정책의 흐름에 배치되지 않도록 방향을 정립하였다(‘추진 요소’). 이와 함께 관련된 정책 분야를 망라함으로써 정책의 집행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통합’).

그림 1 유럽연합 동물 위생 전략 2007-2013 추진 체계



이행계획 1: 유럽연합의 정책 개입 우선순위 설정

가축 위생의 영역, 수의학 기술, 무역 규모, 연구 수준 등이 달라지면서 각종 질병이 미칠 수 있는 위험성과 위해 수준이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이에 면밀한 위험성 평가와 정확한 과학적 조인에 근거하여 어떠한 분야에 자금과 자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지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이 과정은 산업 종사자, 비정부 기구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동물위생 기술정책단(Technology platform on Animal Health)의 검토 의견에 근거한다. 이러한 변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 건강과 사회·경제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이 가장 큰 질병 예방에 대해 많은 자금을 배분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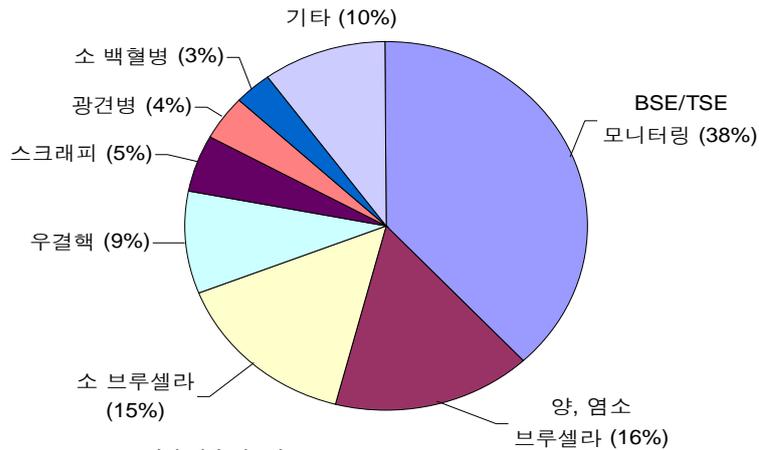
질병에 대한 효과적인 정보 수집과 유형 분류는 사전 예방과 대응의 기초가 된다. 인체에 대한 위협이 미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비용-편익 분석(benefit-cost analysis)과 비용-효과 분석(cost-effectiveness)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모색해야 한다. 잠재적으로 사람에게 위협이 될 수 있지만, 그 발생 가능성이 과학적으로 충분히 규명이 되지 않은 질병에 대해서는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사전에방의 원칙).

면밀한 위험성 평가와 정확한 과학적 조인에 근거하여 어떠한 분야에 자금과 자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지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이번 전략에서 강조한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에서 알 수 있듯이,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면 가축 질병 발생에 따른 직간접적 비용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

이번 전략에서 강조한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에서 알 수 있듯이,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예방하면 가축 질병 발생에 따른 직간접적 비용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조류 인플루엔자(N5H1)에 대해 엄격한 모니터링과 생물 안전 조치를 실시하여 질병의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이번 동물 위생 전략도 농가, 시장, 국경, 운송 수단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생물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질병 감독·관리 수준 강화와 이력추적관리제도 개선을 통해 사전예방을 충실하게 구현할 것이다.

그림 2 EU-15의 질병 감독 및 박멸 관련 예산 중 질병별 비중



주: 1995~2005년 집행 예산 기준임.
 자료: 유럽연합집행위원회, *Questions and Answers on the Community Animal Health Policy 2007-13*

표 4 유럽연합의 위기상황 대응 예산

단위: 1,000유로

연도	돼지 콜레라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기타 질병	합계
1995	-	-	-	-	34,480.0
1996	-	-	-	-	2,350.0
1997	42,549.0	1,750.0	0.0	5,503.2	49,802.2
1998	38,523.3	0.0	0.0	2,476.7	41,000.0
1999	18,077.5	0.0	0.0	2,107.5	20,185.0
2000	47,053.5	0.0	13,790.0	0.0	60,843.5
2001	6,279.2	0.0	17,001.1	731.1	24,011.4
2002	11,418.9	400,448.9	0.0	12,456.1	424,323.9
2003	1,782.5	67,821.3	4,763.8	469.4	74,837.0
2004	8,923.0	78,733.8	55,916.5	5,137.4	148,710.7
2005	4,159.4	119,961.1	18,227.0	3,297.1	145,644.6
합계	178,766.3	668,715.1	109,698.4	32,178.5	1,026,188.3

자료: 유럽연합집행위원회, *Questions and Answers on the Community Animal Health Policy 2007-13*

정보 수집과 유형 분류는 이미 유럽연합 차원에서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정확하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집단의 대표를 리스크 관리 과정에 참여시켜 최대한의 동의를 이끌어 내도록 하고 있다.

정보 수집 대상은 연합 차원, 국가 차원, 그리고 가능한 경우 지역 단위까지 포함되며, 적절한 성과지표를 도입하여 앞으로 6년 동안 위험 관리가 잘 이루어졌는지를 측정한다. 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유럽연합 지역과 관계가 큰 생물학적·화학적 위험을 유형화
-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위험성에 대한 합의 도출
- 우선순위 설정, 정량화할 수 있는 목표 수준과 성과지표 개발

이행계획 2: 압력적이고 적절한 동물 위생 정책 틀

동물 위생에 대한 유럽연합 개입의 주요 원칙 중 하나는 지속적인 정책 발전을 통해 유럽연합 차원의 정책 및 국제 규범 실행에 부응하는 것이다. 기존의 동물 위생 관련 입법 과정은 역내 무역, 수입, 질병 관리, 영양, 동물복지 등 여러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이번 전략에서는 기존의 여러 관련 정책을 단일한 정책 틀로 통합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단일 규정은 가능한 한 국제수역사무국이나 CODEX 등 국제기구의 기준도 반영할 것이다. 또한 유럽연합 식품안전 정책에서 성공적으로 기능을 해 왔다고 평가 받는 일반 식품 법 규정(the General Food Law Regulation (EC) 178/2002)을 근간으로 하고, 이에 맞추어 포괄적인 규정을 발전시킬 수도 있다.

기존의 동물 위생 관련 입법 과정은 여러 분야를 망라하고 있는데, 이번 전략에서는 기존의 여러 관련 정책을 단일한 정책 틀로 통합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표 5 통합된 동물 위생 정책 틀 개선 내용 및 기대 효과

분야	주요 내용	기대 효과
가축 질병	- 질병 예방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 지역 간 가축 위생 수준 격차 축소 - 정부 및 관계집단(생산자, 산업 종사자, 보험업계 등)들이 위험에 공동 대응	- 인센티브 지급으로 사전 예방 강화 - 간접적인 손실 예방 가능 - 균형 있는 민간정부 자금 출자 및 책임 분담 - 대외 협정의 위배 가능성 제거
사료	- 사료업체는 사료 안전성 및 사고 발생 시 사료 회수 조치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부분 ¹⁾ 을 개선하도록 노력	- 국가지역 단위 법 집행의 유연성 확보 - 이익집단 간의 소통 및 협력 강화
국제 기준	- 과학적 근거를 갖추어 OIE/CODEX보다 엄격한 위생검역기준을 마련 - EU 기준이 국제기준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노력 - 수입수출조건 논의에서 교섭력 강화	- 필요한 경우 적시에 과학적 근거 제공 - 장기적으로 EU 차원에서 OIE 회원 가입
수출	- 위생 정책을 강화하여 상대국의 위생검역 조건을 충족	- 제3국으로의 수출 촉진 - 위생 검역 장벽 극복을 통한 경쟁력 강화 - 협상교섭력의 강화

1) Article 8 of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C) 183/2005 laying down requirements for feed hygiene of 12 January 2005.

이러한 규제의 일차적인 기능은 불공정한 국가·지역 차원의 제도가 시장 진입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만,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더불어 역할과 책임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인센티브 중심의 접근 방식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이의 일환으로 현재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는 방식에 대한 수정도 검토가 필요하다.

통합된 정책 틀을 마련하면 공동체 간 무역, 수입, 가축질병 통제, 가축 급여, 동물복지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법들을 대체한 신규 법안을 국제 기준에 합치하도록 함으로써 가축 위생 수준을 공고하게 할 수 있다. 분야별로 기대되는 효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이행계획 3: 감독, 위기 사건대비/관리

차단방역(biosecurity)²⁾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농장에 새로 입식된 동물과 환축의 격리, 사람·가축·장비의 이동 규제, 사료의 올바른 사용, 장비의 청결한 유지와 소독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농장 소유주에게 있지만, 일부 전염성 질병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개별 농가 그리고 종합적인 차원의 차단방역 강화를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표 6 생물안전성 강화 내용 및 기대 효과

주요 내용	기대 효과
사육방식과 축종별로 가이드라인 제공	농가 단위 차단방역 강화(사전 예방 기능)
농가 단계 위생 조치 강화를 위한 자금 지원	

유럽연합에서는 식별, 라벨링, 이력추적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체계하에서 정확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시스템을 일원화 및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식별, 라벨링, 이력추적관리 등으로 가축과 동물성 식품, 그리고 사료에 대한 정보의 품질·정확성·접근성·적시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나 현재 체계 하에서는 가축에 관한 정보를 회원국 간에 확인하기가 어렵고, 가축 수송의 이력 추적도 문서를 주로 이용하고 있다.

전자식별시스템(electronic identification)이 점진적으로 도입되면서 중장기적으로 가축 이력추적시스템을 일원화하고, 유럽연합 차원으로 통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소규모 농가들이 비용 문제 때문에 전자식별시스템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2) 정해진 구역 안에서 모든 생물체의 출입을 제한하여 질병전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방역

표 7 이력추적관리제 일원화의 내용 및 기대 효과

주요 내용	기대 효과
국가별 식별 데이터베이스의 상호 이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 인증을 전자 인증으로 교체하여 가축 이동시 관리 효율성 증진 - 유럽연합 차원의 일원화된 시스템 구축으로 가축의 식별, 위생 상태, 후생 수준 점검 가능
전자식별시스템 도입(장기과제)	

유럽연합은 세계 최대의 식품 수입국이기 때문에 국경 검역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지금까지 국경 검역은 주로 관련 서류를 점검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이 문서의 신뢰도와 정확도가 관건이 되어왔다. 따라서 위험 평가, 정부간의 신뢰, 입국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국경 검역의 효과성과 효율성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왔다. 한편으로는 개도국들에게 유럽연합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관심사이다. 이들 국가에는 기술적인 지원을 하여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유럽연합은 세계 최대의 식품 수입국이기 때문에 국경검역의 중요성이 매우 크며, 개도국들에게 유럽연합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도 관심사다.

표 8 국경 검역 개선 내용 및 기대 효과

주요 내용	기대 효과
현행 법제의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성에 기초한 검역 방식 개선 - 불법 무역의 근절 - 검역의 정확성과 효율성 증진
기관간의 협력 최적화	
관광객들에게 주의 사항을 숙지	
개도국 중심으로 기술을 지원하여 위생 수준 개선	

표 9 감독, 위기 사전대비/관리 개선 내용 및 기대 효과

주요 내용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병 유형에 따른 우선순위 설정 - 적정 지표와 자료 수집의 세부원칙 설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 예방 및 신속한 대응 능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기관 간의 정밀한 네트워크 형성(유럽질병예방관리센터, 유럽식품안전청 등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원 마련(관리, 진단, 인력 육성 강화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질병 공시 시스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 살처분 전문가 파견 및 장비 지원 - 신속한 전과 체계 구축 - 항원/백신 은행의 강화 - 유럽연합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의약품(백신 등)에 대한 승인 	

수의학적 감독을 철저히 하여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고, 가축질병 경로 추적·발병 원인과 전과 경로 등을 분석하면 위기시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또한 예방접종 방식을 개선하고 주요 가축질병 통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여, 새로운 전

수의학적 감독을 철저히 하여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하고, 가축질병 경로 추적·발병 원인과 전과 경로 등을 분석하면 위기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략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인 살처분 규모 축소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가축과 축산물의 위치를 파악하고 그 이동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유럽연합의 육류 및 육류 제품 수입 원칙은 제3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높은 위생 및 소비자 안전을 위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의 식품법은 생산-유통-판매-소비 단계에 걸친 전 과정에 엄격한 통제를 강조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육류 및 육류 제품 수입 원칙은 제3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높은 위생 및 소비자 안전을 위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육류 및 육류 제품을 수입하려면 수의학적 인증을 받아야 한다. 유럽연합에 수출할 자격을 획득한 국가가 유럽연합에서 지정한 검역기관의 관련 절차를 밟아 수출을 하게 된다. 육류 및 육류 제품 수입과 관련된 모든 양국 간 협상이나 관련된 논의는 국가인증 수의기관 간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된 이해기관 및 관계 업체들도 이들 기관을 통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수출국은 합법적 지위 보유 국가명단(positive list of eligible countries)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합법적 지위 보유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수출국의 합법적 지위 보유 기준

- 수출국은 자격이 있는 수의기관을 갖추고, 이 기관이 식품 체인 전반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수출국은 관련된 동물위생기준(animal health standards)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제수역사무국의 회원국이면서 사무국의 기준 및 보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적절한 수의학적 활동을 통해 필요한 위생 관련 조치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 국가기관 차원에서 관련된 위생 및 공공보건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육류의 도축·절단·저장·취급 과정에 관련된 장비, 공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조건이 포함된다.
- 유럽연합이 요구하는 수의학용 약품·살충제·오염물질의 잔류량을 준수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승인을 받은 기관(도축장, 가공공장, 냉동 창고 등)만이 수출을 할 수 있고, 인증을 받은 검역 기관으로부터 검역을 받아야 한다.
- 소·양·염소류의 고기를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는 해당 국가의 광우병 지위(BSE status)를 획득하여야 한다.

유럽연합은 수출을 희망하는 국가에 대해 합법적 지위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실시한다.

- (1) 수출국에서 보건 및 소비자보호 위원회에 공식 요청서 제출
- (2) 위원장이 가축위생 설문서 송부·회수
- (3) 수출국의 잔류물질 모니터링 계획 제출 및 유럽연합의 승인
- (4) (공식 요청서 및 잔류물질 모니터링 계획 승인시) 식품수역사무국의 검역 진행
- (5) 검역 결과 및 수출국의 보증에 의거하여 합법적 지위 보유 국가 명단 등재 제안
- (6) 회원국들이 찬성하면 구체적인 수입조건 수용

이행계획 4: 연구기능 강화

리스크 분석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혁신·연구를 강화하여 전반적인 공공 위생 수준을 높이고 유럽연합 동물 위생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유럽·국가 표준연구소(Community and National Reference Laboratories)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유럽연합 차원의 지식 전파를 극대화할 것이다. 유럽식품안전청과 유럽의약청의 기능도 이전보다 강화하여 수준 높고 객관적인 과학적 조언을 제공하고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할 것이다.

리스크 분석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혁신·연구를 강화하여 전반적인 공공 위생 수준을 높이고 유럽연합 동물 위생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표 10 연구기능 강화 내용 및 기대 효과

주요 내용	기대 효과
- 유럽·국가 표준연구소 네트워크 구축	- 유럽연합, 회원국 기구 간의 연계 강화
- 유럽식품안전청 및 유럽의약청과의 연계 강화	- 동물 관련 질병에 대한 우선순위 제공, 국가 간 격차 해소
- 7차 framework programme(2007-2013) 추진	- 적절한 수준의 자원 확보
- 유럽동물복지센터 건립 추진	- 국제 협력 강화

표 11 식품 안전, 동식물 위생 예산

단위: 백만 유로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교육 및 감독 프로그램	245	308	308	308	308	308	308
위기상황 대응 기금	48	48	48	48	48	48	48
기타 수의학적 조치	10	10	10	10	10	10	10
식품 및 사료 안전성	35	35	45	55	65	75	84
계	338	401	411	421	431	441	450

주: 경상가격 기준

자료: 유럽연합집행위원회, *Questions and Answers on the Community Animal Health Policy 2007-13*

참고자료

유럽연합집행위원회, *Questions and Answers on the Community Animal Health Policy 2007-13*

유럽연합 이사회, *Council Conclusions Commission Communication on a New Animal Health Strategy for the EU (2007-2013) "Prevention is better than cure"*, 2007.11.30.

유럽의회,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22 May 2008 on a new animal health strategy for the European Union 2007-2013 (2007/2260(INI))*, 2008.5.

FAO, *Grain Production and Export Potential in CIS Countries*, 2008.3.

OECD,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07-2016*, 2007.